

2025 년 전반기 아프리카 선교 보고(이은용, 홍영신 선교사)

2025년 1월

케냐 중부 지방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2025.1.10)



케냐 나쿠루 지방 오길게이 교회에서 중부 케냐 홀리스틱 선교 교회(Holistic Mission Church) 지도자들과 함께 2025 년 신년 계획과 비전을 나누었다. 나는 목사들에게 ‘영적 목표를 가진 자의 영적 싸움(에베소서 6:12)’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2025 년 한해동안 믿음의 전신갑주(全身甲冑)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설교했다. 주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중부 지방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냐 북부 지방 지와(Ziwa) 지역 교회 연합 집회(2025.1.11)



2025 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와(Ziwa) 지방 날릴베이(Nyalilbei) 교회에서 신년 연합 예배를 드렸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비전(고린도 후서 5:17)’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2025 년 새해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와 지방의 다음 세대를 영적인 군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홀리스틱 선교회 신학교(Holistic Mission Bible School, HBS)를 날릴베이 지역에 건립하기로 했다. 신학교 부지를 점검하고 학교 강의실 및 세미나 실을 건축하기로 했다.

홀리스틱 미션 신학교 건축 현장 방문(1.12)



홀리스틱 선교회(대표 이은용 목사)는 사우스리프트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다솔 선교사와 로버트 목사를 중심으로 케냐 사우스 리프트 지방에 신학교를 건립하고 있다. 현재 강의실 2개, 행정 사무실,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다. 케냐 교육부에서 인준하는 학교를 통해서 학사 학위 과정을 시작하고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신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도 드린다.

캡텔곶(KAPTETGOT) 열방 선교 교회 건축 기공예배(1.12)



캡텔곶 교회 기공 예배에서 고린도 후서 5:17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비전’ 제하의 설교를 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캡텔곶 교인들과 교회 뜰로 나아가서 간단한 기공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안전을 지켜 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 사회와 케냐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케냐 쿠알레(Kwale) 지방 목회자 컨퍼런스(2025.1.18)



1999년 처음으로 방문한 쿠알레 지방의 멘자무에니(Menzamuenyi) 교회에서 케냐 해안 지방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2025년 신년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다. 목회자들은 섭씨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고린도후서 5:17절을 중심으로 ‘새해 새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케냐 해안 쿠알레 지방은 80%를 육박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뤄야 한다. 홀리스틱 선교회는 지난 26년 동안 수 없는 전도 집회와 현지 목회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해서 현재 60여개의 교회가 개척했다. 본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은 케냐 해안 지방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쿠알레 지방 부위티(Bwiti) 교회 주일 예배(2025.1.19)



케냐 해안 쿠알레 지방 부위티 교회를 방문하여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영적인 꿈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나는 부위티 교회 교인들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지만 요셉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꿈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남부 에티오피아 다웨로(Dawero) 지방 전도여행(2.10~17)



다웨로 지방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사도행전 1:8 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감람산 산상 기도, 마가

다락방 기도를 했고 성령 받은 후에 힘 있는 메시지 선포, 놀라운 치유, 공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킨 것을 본받아 복음 전도에 정진하자고 설교했다.

홍영신 선교사 남부 에티오피아 산상 집회 간증



홍영신 선교사는 어린 시절(10 세)에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선교사가 된 이야기와 1996 년 에티오피아에서 막내를 임신하여 물자가 귀하여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당했던 어려움에 대한 간증을 했다. 비록 에티오피아에서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지만 막내를 출산한 에티오피아는 자신에게 제 2 의 고향이라고 했다. 산상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홍영신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박수치며 기뻐했다.

남부 에티오피아 다웨로(Dawero) 지방 엘라(Ella) 교회 부흥 집회



고린도 후서 5:17 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멈출 수 없는 전진’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삼위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완전하고 열매 지향적인 창조였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죄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생명 구원을 위한 전진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중단 없는 전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거룩한 보호하심, 거룩한 공급하심, 거룩한 승리를 전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엘라 교회는 교회 신축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엘라 교인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라고 설교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공격적인 헌신을 강조하면서 1935 년 철산읍 교회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교회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철산읍 교회의 장로였던 나의 할아버지 이사준 장로께서 모든 재산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간증을 전했다. 나의 할아버지 이사준 장로께서는 8 남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집을 확장하려고 건축 자재와 재정을 모아 두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모아둔 모든 재산을 헌금해서 철산읍 교회를 지으셨다.

북부 에티오피아 바하다르(Bahadar) 지방 전도여행(2.18~23)



사도행전 1 장 1:1~8 절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설교를 했다. 서두에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갖게 된 것과 동일하다고 소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40 일간 500 여명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3 가지 유언의 말씀을 전했다.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2.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3.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 헤롯당 정치인, 바리새인과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따를 자들을 핍박하는 장소였다. 제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마가복음 4:35~5:43)과 동일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부여되었다. 나는 고삼 지방의 교회 지도자들의 예수의 능력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열방 선교에 귀히 쓰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개혁신교회 연합 교단 지도자와 미팅(2025.2.28)



오늘 파리 개혁신교회 연합 총회장 임마누엘과 선교 부장 주마(Juma)를 만나서 파리 개신교 현황을 들었다. 루이 14 세때에 개신교 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200 년 동안 이어진 박해로 수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은 노예선에 끌려가서 중노동 하다가 사망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박해는 아직도 프랑스 개혁신교회 교인들 머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나는 프랑스 개혁신교회와 한국 교회가 모로코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안내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지만 인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프랑스 교회가 직접 사역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PCK 목회자들과 위그노 유적지 탐방



파리를 방문한 PCK 목회자들과 장신대 선교학 교수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함께 위그노 유적지를 방문하여 200 년 동안 엄청난 핍박으로 순교한 개신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 그러나, 위그노에 대한 핍박으로 이웃 나라로 피난간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멀리 미국에 까지 위그노들의 정신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오늘 파리 시내를 13,000 보 이상 걸으면서 위그노 역사와 종교 개혁자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25년 3월

모로코 PCK 선교포럼(2025.3.3~7)



PCK 제 9차 선교 포럼이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이슬람 선교”를 주제로 개최 되었다. 전세계에서 모인 70명의 선교사들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슬렘 선교를 위한 전략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아직 한국 교회는 북부

아프리카 선교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포럼 장소를 이슬람이 국교인 모로코로 정했다. 과연 이슬람이 국교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이번 이슬람 지역에 효과적인 선교 전략 포럼을 통해서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뿐만 아니라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 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동부 아프리카 해안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이슬람 인구가 6억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케냐 동부 인도양에 접해 있는 해안 지방은 이슬람이 거의 점령했다. 나는 현재 우리 선교부에서 케냐 해안 지방에 세운 60여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슬렘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선교부도 케냐에 11%에 달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자카르타 KWMF 한인세계 선교사회 임원수련회(2025.3.17~24)



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첫번째 교회인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설교자는 중풍병자의 치유는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내려 예수 앞에 데려다 놓은 네 명의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우리도 네 명의 친구처럼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데려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PCK 선교사 위로회(2025.3.25)



자카르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PCK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 한국 하남을 방문해서 돼지 고기 요리를 배운 젊은 청년이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나라에서 돼지 갈비 식당을 열었다. 모슬렘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엄청난 손님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2025년 4월

그리스도 군사 선교회 특강(2025.4.7)



그리스도 군사학교(대표 이종선목사) 훈련에 46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제하의 특강을 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느꼈다. 이종선 목사는 부친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여 모든 역경을 뚫고 지난 35년 동안 수천명의 목회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했다.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고 금년 10월 케냐로 단기 선교 팀을 보내기 위해서 통합 교단에 소속된 그리스도 군사 선교회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 계획을 세웠다.

한동대학교 GMI 선교 특강(2025.4.12)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여 글로벌 선교학교(Global Mission Institute, GMI)에서 특강을 했다.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했다.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굼즈(Gumuz)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남부 에티오피아 월라이타(Wolaita) 부족안에 나타난 영적인 부흥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 중심의 강의를 마친 후에 15명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여 안수 기도해 주었다. 40여명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주말에 모여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광경을 보면서 한동대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았다.

하늘 꿈 연동교회 창립 25주년 특별 새벽기도회(2025.4.17)



새벽 4 시부터 하늘 꿈 연동교회 식구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일이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도말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는 자유롭게 거룩한 성령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생명 구원의 영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사도행전 1 장 8 절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제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르침-봉사-교제를 통해서 단단해 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나는 하늘 꿈 연동 교회도 25 주년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와 가르침, 봉사, 교제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 져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라고 설교했다.

경산 진량 제일 교회 수요 성령 집회(2025.4.30)



금년 초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간 경산 진량 제일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 성령 집회를 인도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사도행전 1:1~8) 제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마지막 유언인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공격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 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다. 진량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빛 세계 선교회(The Light World Mission) 목요 집회(2025.4.31)



복음 28:18~20 절을 중심으로 ‘GO’ 제하의 설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브라함과 느헤미야는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했고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는 마지막 명령에 순종함으로 열방 선교의 문을 열어 놓았다. 매주 목요일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열방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빛 세계 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인 열방 선교에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 드린다.

2025년 5월

케냐 해안 지방 목회자 컨퍼런스(2025.5.12~14)



케냐 해안 지방 노회 임원 30명이 모여서 2025년 상반기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나는 사도행전 13:1~3절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성령에 지시함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된 교회의 원칙을 지키는 선교적 교회라고 강조했다.

지와(Ziwa) 홀리스틱 미션 신학교 기공 예배(2025.5.17)



케냐 북부 지방에 위치한 지와 지방에 홀리스틱 미션 신학교(Holistic Mission Bible School)을 건립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렸다. 기공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라! (마태복음 28:18~20)’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남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떠남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나는 지와 교회가 선교부와 일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포콧 부족 지방과 엘곤 산 지방으로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했다. 지와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미전도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케냐 서부 지방 목회자 컨퍼런스(2025.5.19~21)



마펏 박사의 에딘버러 선교대회(1910) 보고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일본 식민 통치하에 자유를 잃고 가난과 빈곤을 뚫고 오늘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강국이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했다. 한국 교회는 1. 하나님의 말씀 공부 2. 간절한 기도 운동 3. 적극적 전도 4. 자력으로 교회 건축 등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케냐 사우스리프트 지역 목회자 컨퍼런스(2025.5.22~24)



사우스리프트 지방 캅카텔 신학교에서 2025년 상반기 목회자 컨퍼런스를 시작했다. 3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가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부어 주시는 **무형자산(Invisible Capital)**을 사용할 수 있다.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 할 땅으로 힘찬 전진을 시작했고 100년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거룩한 공급하심, 그리고 거룩한 승리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나는 케냐 사우스 리프트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브람처럼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권고했다.

캡텔골(Kaptetget) HMC 헌당예배(2025.5.25)



케냐 사우스 리프트 지방 캡텔골 교회는

1996년에 개척되었다 개척 당시 0.25Acre 땅을 조셉 루토(Ruto)에게 헌물로 받아 17명의 성도가 교회를 시작했다. 당시 침례교 소속으로 있다가 2009년에 담임 목사 사무엘이 홀리스틱 선교회에서 2년간 훈련 받고 본교단 소속이 되었다. 현재 153명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헌당 예배에 주변 교회들이 함께 참석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해 주었다.

나는 사도행전 1:8절과 출애굽기 8:1절을 중심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Go to the Nations)” 제하의 설교를 통해서 캡텔골 교회가 시골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여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전했다.

여섯 번째 손자 노아 탄생 축하 방문(2025.6.5~10)



우리 부부의 네째 막내딸 예은이 둘째를 낳아 이름으로 노아(안위, 편안의 뜻)로 지었다. 아프리카에서 바쁜 사역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노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명의 딸들이 다 출가해서 복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행복한 생활을 하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린다.